박근혜-한명숙 회동 "국민경선 도입하자"

여야 총선전 선거법 개정 합의 처리 시사

한 "민생 최우선 생활정치로 거듭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4·11 총선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민경선 방식으로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한 대표가 신임 대표로 취임한 데 대한 예방차원에서 국회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실을 찾으면서 이뤄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민주통합당도 국민경선을 추진하는 중으로 안다"면서 "시간이 별로 없어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 바쁜 일이 있겠지만 우선 이것을 검토해서 양당이 개정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그 요구가 폭발적"이라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면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양당 대표가 모두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된 이른바 정봉주법에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생활정치로 거듭나겠다"며 "과거 정치가 권력정치였다면 미래 정치는 생활정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1% 소수가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로, 재벌개혁은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모든 자원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3+1 정책'을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7일 국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실에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곡담' 쪼개기 안된다

단식농성 등 총선 예비후보·지역민들 거센 반발

정치권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쪼개려는 움직임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총선을 불과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서 가장 기본인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담양·곡성·구례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김재두 예비후보는 17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촌 지역 선거구를 생활권이 다른 인접 도시와 무리하게 통폐합하려는 것은 국회가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 중앙당사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한다면 농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없어지고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치권이 주민 생활권도 무시한 채 선거구를 쪼개려 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주민 송모(45·담양군)씨는 "17대 총선 때 담양·장성·곡성과 구례·광양이었던 선거구가 18대 총선 때 담양·곡성·구례로 통합하더니 19대 총선 때는 담양·곡성·구례를 생활권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으로 쪼개려 한다"고 반발했다.

정모(52·곡성군)씨는 "선거를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를 쪼개려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능시험을 코앞에 두고 시험과목을 정해주지 않아 수험생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며 정치권을 성토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없애기로 하고, 담양은 영광, 곡성은 순천, 구례는 광양으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김재두 예비후보가 17일 중앙당사에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전주불출마'

부산 영도·서울 강남 검토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17일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덕진 선거구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전주 덕진 선거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 고문의 선택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호남 물갈이론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총선 승리 전략으로 거론되는 중진의 사지출마론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고문은 다음 행보와 관련,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으나 부산 영도나 서울 강남 등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1 총선·보선 현장

김영진 '미주 한인 후원 대상' 수상

민주통합당 김영진 의원이 최근 미주한인재단-USA 주최로 열린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제1회 미주한인후원대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세계 한인의 날'이 우리 정부의 법정기념일로 확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과 협력해 '미주한인의 날법'도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운, 나주·화순 출마 선언

배기운 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시대정신에 맞춰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19대 총선에서 나주·화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배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이상 정통 야당을 지켜오면서 민주화 투쟁에 젊음을 바쳤고 제16대 국회에서는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민주통합당과 함께 나주·화순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차은, 광산 을 출마 선언

황차은 통합진보당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17일 "기득권과 보수층을 쓰리도록 하는 매운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며 4·11 총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1000만의 시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생활과 정신이 피폐해 가고 있고 끊임없는 기업의 탐욕은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답으로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카톡 허용 문자메시지 제한 문제"

이병훈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7일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도 문자메시지는 선거법에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결정했다"며 "카톡과 문자메시지는 기능이 비슷한데도 카톡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고 문자메시지는 별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송아지 북한 보내기 운동 제안

박광온 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는 17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송아지 북한 보내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 이날 해남군 현산면 등 축산농가를 순회한 즉석 좌담회를 통해 "낙농가 파동 시에 우유쿼터제를 적용한 것을 축산업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한우를 북송해 안보와 식량문제, 남북 화해 물꼬 트기, 농·축산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영체, 강진군수 보선 출마

곽영체 전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강진아트홀에서 강진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곽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가 있는 강진을 디자인하고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군민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 풍요로운 강진 가꾸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광신대학교

2012-1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 강 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4㎝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 혜 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방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여성가족부 인정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http://www.hankookjej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의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감 농 SET
다 담 SET
우전감로
감 사 SET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서울 차생원 : 02)730-2983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T.222-2902.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